

00

國語文典音學

白



58111

1

猶我

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創制하시니字簡音備하여轉換記事에不通함이無하여
習用하기極宜且便하기늘自來에는로國語를記用하는者一其宜를多失하여言
文이相協지 못하여簡함이煩하고精함이粗하게되어濁亂無稽한弊를致호지라
周時經氏가是를慮하여十餘年國文을潛心하여自然한音理가固有한國語에一
音一畫이라도다그正當한音法이有함을爰得호지라昨今夏期에國語講習所를
設하고그研究호마를音學字分學變體學格學等科로分하여教授하기로余가同
所에就하여始終을講習하니其法이絲詳하여我國도言의指南이되는지라此法
이廣行하여야國文의行用이正當하여질것이요國文의行用이正當하여야國民
의教育이發興호지라이에余가徐友相揆氏로더불어商協하여講習호바中에音
學一科가國文流弊를澄清호本源이되는故로爲先博文書館에委托하여發行호
이로라

隆熙二年八月 日 朴兌桓 書

第二回夏期國語講習

國語講習이라면爲先自國의 言文이 그 民國에 對하여 如何한 關係가 有함을 講究함이 可호故로 此說를 左에 略陳하여 發端의 言을 삼노라

自國言文

浩湯無極하여 上下中外가 업는 저 宇宙에 一이 存하여 四方에 充滿하여 生滅과 始終이 無호지라 其間에 無數의 物體가 有하니 此로 從하여 成하고 또 모든 物體가 各各此로 從하여 命호性이 有호지라

此는 萬有의 源이요 萬有의 主니 天이라 上帝라 理라 함이다 此를 謂호니라

吾人이 寄息하는 地球도 天體의 一이라 其面이 水陸으로 分하여 水는 五大洋을 成하고 陸은 六大洲로 劃하고 洲마다 또 區域이 分하여 人種이 生存하는 지라

人種도 此陸의 界境을 從하여 洲洲不同하고 區區又不同하여 各人種의 言語도 此를 依하여 洲에 大分하고 區에 又分하여 各自不同하니 此는 天이 其域에 其種을 命하고 其種에 其言을 命하여 一境의 地에 一種의 人을 産하고 一種의 人에 一種의 言

을發刊함이라

是以로天이命호性을從호여其域에其種이居호기宜호여其種이其言을言호기適호여天然의社會로國家를成호여獨立이各定호니其域은獨立의基호其種은獨立의體호其言은獨立의性이라

我國은亞細亞洲東方溫帶에在호여北으로靈明호長白山을負호고東西南으로溫和호三海를面호半島라天이此域을界호고我人種을祖産호고土音을命호며此人族이此音을發호여此域의言語를作호니檀朝開國後로만計호여도四千餘年을傳用호며此는我韓의國語니天然의特性으로獨立되는表니라

我朝 世宗朝에서國音을依호여國文을 親製호사至今四百六十三年을傳用호며此는我韓의國文이니天然의으로發호는言語를記用호는特色의文字니라某國은天下에最強호여其威가萬國에蓋호지라도其民의自國性이最弱호면其國은畢竟天下에最弱호호未免호호것이호其國은天下에最弱호호他人의凌駕를受호며呼吸을自意치못호지라도其民의自國性이天下에最強호면其國은畢竟

天下에 最强함을 期望할지라

是以로 自國을 保存하여 自國을 興盛케 하는 道는 國性을 獎勵함에 在하고 國性을 獎勵하는 道는 國語와 國文을 崇用함이 最重要함으로 自國의 言과 自國의 文이 某國의 言과 某國의 文만 不如할지라도 自國의 言과 自國의 文을 磨하여 光하며 求하여 補하여 期於히 萬國에 並駕하기 是은 國語를 我 檀朝 以來에 德政을 行한 던 優等의 言語와 子母의 分別이 簡要하여 記用이 便利한 文字를 開國 四千餘載에 研究가 寂然하여 語典一卷도 尙此 未成함으로 近者에 國語로 著作하는 文字가 各各自 意를 從하여 言語의 訛說함과 文字의 誤用하는 弊가 相雜하여 正當한 言文이 되지 못함으로 國民이 自國言과 自國文을 愛重함 思想이 發치 못하는지라 此時를 乘하여 外國의 言文은 風海에 狂潮와 如히 驅入하고 微弱한 國性은 敗壞에 倦旅와 如히 退縮하니 今日를 當하여 國性을 保存하기에 最重要한 自國言文을 此境에 眞하고 度外로 視하면 國性도 日衰할 것이요 國性이 日衰하면 그 影響의 所及이 可測치 못함은 境에 至하여 國勢의 回復은 期望도 無할지라 國語와 國文을 講求하여 釐正하여 獎

勤苦이 今曰의 急務라 할 노라



國文의音學

音은天地에自在호는者라故도何人이든지能히加減도못호고變易도못호는니라
音은形象이無호는者라是以로形象을感호는眼으로는音을見치못호고耳로만聽
호는니耳는形의感管이안이요無形호는音의感管임이니라

音은空氣의波動이니空氣가無호면音도無호니라故로眞空에서는鍾을打호여
도聲이無호니라

音은有別聲의無別聲의別이有호니雷聲과風聲과木聲과石聲과如호는者는無別
聲이요人類의言語와如호는者는有別聲이니라

音은有無別을勿論호고音色의別이再有호니그激動된物體의性質을隨호여各
異호니라

有別聲은人類社會에實用이最緊호터또子母의別이有호니自發호는者를母音
이라호고其音은自在호되自發치못호고母音에依附호後에야發호는者를子音
이라호는니子音이母音에서生호는안이요母音을依호여發호는니譬호면太陽

의 光은 七色이로되尋常호물體에 照호되 淡色을 무호나 菱形 琉璃에 反照호면 本色을 見호는니 七色이 琉璃에서 生호미 안이요 太陽의 本色이 琉璃를 藉호여 見호미 如히 子音이 母音에서 生호미 안이요 母音을 依호여 本音을 發호호면이니 人의 音은 肺經이 그 神의 命에 感호여 聲膜을 激호면 空氣의 波動이 起호여 無別聲이 成호여 聲管으로 通出호다가 喉에 達호호되 牙舌唇齒喉로 節制호호여 子母의 分別과 子母가 各各分別됨을 作호는니라

人類의 音이 普通은 如斯히 相同호되 句域과 人種이 不同호므로 語音도 各異호나 此는 天然의 理라 故로 音을 依호여 文을 制호호나니라 마다 不同호미 此故니라 是以 鄭公麟趾의 調民正音序에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이라 호나니라 漢文과 如호호는 事物을 圖호호여 表호호는 文字요 音은 다서 其圖를 稱號호호라 호付호호 것이로되 我國文과 日本文과 英國文과 如호호는 音을 記호호는 文字니라

事物을 表호호는 文字는 音을 足히 議論호호마 無호호고 音을 表호호는 文字라도 文字가 音을 盡호호지 못호호저 언정 音이 文字를 盡호호지 못호호은 無호호고 文字가 音에 達호호저 언

정음이 文字에 違함은 無하고 文字가 音에 不足함이 然
지니 文字가 音에 外호는 文字가 안이니라

音學은 子母를 分別함이 最緊호되 文字가 無호면 子母를 說明호기 不便함으로 國
文의 子母를 下에 略陳호여 普通의 子母々지 解호자 호노라

(가)라 호면 ㅏ는 ㅑ이 無호여 도 自發호는 니 此와 如호호를 母音이라 호고 ㅑ은 如
此호音이 ㅏ에 先호여 分明히 發호지 마는 ㅏ를 除호면 ㅑ音이 發호 못호는 니 此와
如호호를 子音이라 호는 니라 ㅑ은 ㅏ에 호音으로 ㅏ에 依附호여 發호
이요 ㅑ音이 ㅏ에서 生호호는 안이니라

訓民正音

國之 語音異乎 中國與 文字不相流通故 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
爲此 惘然 新制 二十八字 欲人人易習便於日用耳

ㄱ 牙音如君字初發聲並書如蜥字初發聲

ㅋ 牙音如快字初發聲

ㆁ 牙音如業字初發聲

ㄐ 舌音如斗字初發聲並書如覃字初發聲

ㄑ 舌音如吞字初發聲

ㄒ 舌音如那字初發聲

ㄓ 舌音如驚字初發聲並書如步字初發聲

ㄔ 唇音如漂字初發聲

ㄗ 唇音如彌字初發聲

ㄘ 齒音如卽字初發聲並書如慈字初發聲

ㄙ 齒音如侵字初發聲

ㄏ 齒音如戍字初發聲並書如邪字初發聲

ㄏ 喉音如挹字初發聲

ㄏ 喉音如虛字初發聲並書如洪字初發聲

ㄏ 喉音如欲字初發聲

ㄏ 半舌音如闕字初發聲

△牛齒音如穰字初發聲

、如吞字中聲

一 如卽字中聲

丨 如侵字中聲

丄 如洪字中聲

卜 如覃字中聲

下 如君字中聲

十 如業字中聲

止 如欲字中聲

卞 如穰字中聲

丌 如戍字中聲

卍 如斃字中聲

終聲復用初聲。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一上

下又附書初聲之下 ㄷ ㄱ ㅋ 附書於右凡字必合而成音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

此訓民正音은

世宗朝에 서 二十八年丙寅에 頒布하시었으니 距今 隆熙二年 四百六十三年이라

保蘭齋申叔舟梅竹軒成三問學易齋鄭麟趾太虛亭崔恆等諸公은 贊하고 開國重臣들과 集賢殿學士들中에 不可라 함이 多하시었는니라

訓民正音略解

國之語音으로 便於日用耳々지는 親序니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 ㅎ심은 我國과 支那는 天然의 句域이 不同하시며 氣候水土와 性質習尙도 相異하시어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 不適當으로 流通치 못함다 ㅎ심이니 故我國에서는 我國에 適宜한 文字가 有하시어 야 流通되리라 ㅎ심인되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으로 頭句를 삼으심은 正音은 我國의 語音을 爲主하시어 制하시는 主義요

日用하기便하다음심이라

ㄱ如君字初發聲은君의 ㄱ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요 並書如蜥字初發聲은蜥의 前音과 의 사를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라

ㅋ如快字初發聲은快의 ㅈ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라

ㅇ如業字初發聲은業의 前音업의 ㄴ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니 ㅅ에 行用되는 終聲ㅇ과如호音이요

ㄷ如斗字初發聲은斗의 ㄷ을除호고其餘音이요 並書如覃字初發聲은覃의 前音담의 ㄴ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라

ㄴ如吞字初發聲은吞의 ㄴ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라
ㄹ如那字初發聲은那의 ㄴ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라

ㄷ如鷲字初發聲은鷲의 ㄷ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요 並書如步字初發聲은步의 前音부의 ㄷ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라

ㅍ如漂字初發聲은漂의 ㅍ을除호고其餘音이라 ㅎ이라

口如彌字初發聲은미의丨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라

又如卽字初發聲은즉의丿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요並書如慈字初發聲은慈의前音ㅈ의·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라

大如侵字初發聲은침의ㅍ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라

又如戍字初發聲은술의ㅅ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요並書如邪字初發聲은邪의前音ㅅ의卜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라

又如挹字初發聲은挹의前音ㅈ이나ㅍ의ㅍ이나ㅆ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니호보다輕호고軟호音이다

古如虛字初發聲은허의ㅈ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요並書如洪字初發聲은洪의前音ㅎ의ㅍ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라

○如欲字初發聲은욕의ㅍ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라然호나欲의音은ㅍ聲이요初發聲은音이無호나○은有若無호나

又如圓字初發聲은려의ㄱ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이라

○ 이此例에는層音을輕重개는效力이有호表가되는니有若無호欲字初聲
○ 의同例로觀호하는안이니라

初聲合用則並書는初聲을合用호則並書라함이니此는並書의義를解호이라
並書는左右로書호를謂호이니곳ㄱ ㅋ ㆁ等字니라

終聲同은終聲으로도合用호면并書호미初聲의并書호과同호다함이니終聲으
로도並書호다호인디國語에담호綴호等字의終聲이니라

、 一 ㄱ ㄷ ㅂ 附書於初聲之下는初聲下에附書호다함이니例로 ㄱ을先書호고
其下에附書호여 ㅂ ㄷ ㅂ ㅅ ㅈ을成호다호미라

一 ㅌ ㅍ ㅋ 附書於右는初聲右에附書호다함이니例로 ㄱ을先書호고其右에附
書호여 ㅌ ㅍ ㅋ ㅅ ㅈ을成호다호미라 終聲復用初聲初호此初聲
지는다綴字호는例니라

凡字必合而成音은凡字는合호後에야成音호다함이니此는綴字호는規模를總
舉호여終結호미요或疑호만호바의母音도獨發치 못호다호은안이라此는○

이有若無호關係로可히知호하여後生이此를未解호變가有호니라

左加一點則去聲은某字의음이去聲이면其字의左에一點을加호다음이이라

二則上聲은某字의음이上聲이면其字의左에二點을加호다음이이라

無則平聲은某字의음이平聲이면其字는點이無호으므로表호다음이이라

入聲加點同而促急은入聲은其終聲72니으므로自表가되나此自表外에上去平

의別이又有호니그分別되로去聲에는一點上聲에는二點平聲에는無點으로

表호되他去上平聲보다는促急호다음이니此는入聲이라호는終聲72니을

分別호이안이요其母音의長短을表호미라

龍飛御天歌에도國語入聲字를左加一加二無點으로表호였는되四五六章에

열^{三〇}十二^{三〇}章에열^{三〇}三^{三〇}章에^{三〇}三^{三〇}如此히表호미有호니入聲도母音의長短을依

호미去上平으로分別호미明確호니라

眞言集에漢文韻平聲은哀而安호고上聲은厲而舉호고去聲은清而遠호고入

聲은直而促이라호였고康熙字典에平聲은平道莫低昂호고上聲은高呼猛烈

強호고去聲은分明哀遠道호고入聲은短促急取藏이라호였으나正音에去上

不入의別은如此치도안코母音의闊狹高低清濁의別도勿論하고長短단分別
 聲의最長者는二點稍長者는一點平常者는無點으로表호이니其例가漢文韻
 法과不同호니라 ○ 左加一點則去聲何如九切서지
 七母音의長短을表호는例니라

初聲이라호은母音에先호여發호는子音이라호이요終聲이라호은母音에後호
 여發호는子音이라호이요中聲이라호은初終聲間의聲이라호이다此는正音
 字의音을漢字音으로證明호는例에用호文字어는後生이初終聲이며依例子
 音이요母音이면依例中聲인줄로未解호疑호가有호니라

題謂民正音의義는民을訓호는正호音이라호이나言語의訛誤가多호故로音을
 正호호야可히文을成호지다然호나此로民을訓치안으면詭習을改호수업고
 詭習을改치못호면相當호言文을不得호호이요相當호言文을不得호면他國
 文을永用호호이요他國文을永用호면我國民이自國性을永失호호이요我國
 民이自國性을永失호면我國의前途가無狀호境에至호리니此弊를救호라
 면不可不言語의詭習을改호고音을正호호相當호言文을成호호도此로民을

訓을 여야 되리라 함이라

聖意는如斯하나正音이頒布된後로行用된은漢文繙譯의多小와婦孺의習用에不過호를덜더러此도誤解하는弊가甚하여行用되지 못함안不如호지라
語音을正音이며文을成音이며民을訓音이며 先王聖業의萬一을闡明하며國性을獎勵함이今日의急務라호노라

正音二十八字를解釋호니如左함

牙音

ㄱ ㅋ ㆁ

ㄱ ㅋ ㆁ 是 ㄱ 의 濁音 이니 ㄱ ㆁ 나 ㆁ ㄱ 의 混合音 音인디 ㄱ 左에 一畫은 ㅎ을代表호며加호者요 ㆁ 字는 ㄱ ㅋ 와 함께 牙音의 同類로相屬호는이요他關係는無호며

(例) 각하를連發호면가카와同音

ㅎ 是 他子音과連호면混合性이有호故로加疊되지만호混合호는니是以로ㅋ는ㅎㄱ의合音도됨

(例) 國語習慣으로흔이정호고외, 들때고술여정호라호는니정

舌音

ㄷ ㄷ ㄴ

코는 정음표의 ㄱ이 습음하여 ㅋ가 된 것
ㄷ은 ㄷ의濁音이니 ㄷ나 ㄴ나 ㄷ의 混合音인 ㄷㄴ에 一畫은 舌
를代表하여 加호者요 ㄴ은 ㄷ과 함께 舌音의 同類로 相屬호는
이요 他關係는 無호며

唇音

ㅍ ㅍ ㅂ

(例) 國語習慣으로 혼이 정음표의 ㅍ, 볼 때 고 줄여 정음표라 하는 ㅍ
라는 정음표의 ㅍ이 습음하여 ㅍ가 된 것
ㅍ는 ㅍ의濁音이니 ㅍ나 ㅂ나 ㅍ의 混合音인 ㅍㅂ은 ㅍ를 轉橫호
것이니 轉橫호인 ㅂ의 音을 混合호는 것으로 代表호는 ㅍ이요 ㅍ은 ㅍ
과 함께 唇音의 同類로 相屬호는 異요 他關係는 無호며

(例) 심호를 連發호면 시포와 同호고 시포는 다시 심호와 同호

齒音

ㅅ ㅅ ㅆ

ㅅ는 ㅅ의濁音이니 ㅅ나 ㅆ나 ㅅ의 混合音인 ㅅㅆ의 一畫은 舌
를代表하여 加호者요 ㅆ은 ㅅ와 함께 齒音의 同類로 相屬호는
이요 他關係는 無호며

喉音

○ ㅎ ○ ㅎ ○ ㅎ

(例) 國語習慣으로 흔히 정[○]하[○]지[○]의, 들[○]때[○]고[○]줄[○]여[○]정[○]치[○]라[○]하[○]느[○]니[○]정[○]치는 정[○]하[○]지[○]의[○]ㅎ[○]스[○]가[○]합[○]하[○]여[○]차[○]가[○]된[○]것

ㅎ은 ㅎ의濁音이니 ㅎ字音보다濁音인디 ㅎ는 ㅎㅎㅎ나 ㅎ의
合音이라고도 할만하니 ㅎ字의音은 ㅎ와相同호性質로 ㅎ보다
조름더淸輕호辨인故로 ㅎ音이 ㅎ에入하[○]여도 ㅎ는變호辨[○]것이 없
으며 ㅎ는 ㅎ音보다濁音이나 實用으로 보면濁音이라 할수 없
으며 正音에 ㅎ를並書호음으로觀하[○]여도濁音이 안이요 淸音이니
라 ㅎ은 ㅎ字와 합쳐喉音에相屬호辨이요 他關係는無호辨이 ㅎ은
無音인則如此히排別호辨마도無호辨

半舌音

△ ㄹ

△字는 ㄹ의濁音이니 ㄹ나 ㄹ의混合音인디 正三角形△字
는連曲連轉호는音로 通호는音即宮音호를合호象이라

(例) △字의音은 ㄹ의이를除호고其餘音인 ㅎ即 ㅎ을呼호여其
初聲과如호音이라

△字는右陳호規例를推觀하면牙舌唇齒喉五音이各各其類마다第二位字는第一位字에古를合호音이라然호즉△字는그의次位에載在호였으니그古의合音됨이明白호지라此証을得호며別로他証을再要호바가無호나△字는穰字의初發聲과如호다호였으니穰의前音은양이요支那의北音即漢音은陽或양이요南音即吳音은양이라양의初發聲이면ㄴ이라ㄴ은舌音第三位에載在호였은즉ㄴ을二制치안이호였을지니△가穰字南音의初發聲은안임이無疑호고前漢語教師胡文煊에穰의音을問호즉穰字를讀호면서一學生을請호여韓國文으로記호라호며該生이양의記호호더라然호나양의初發聲은그이라그은半舌音第一位에載在호였은즉ㄹ을二制치안이호였을지라華東正音通釋에穰字의我漢音을다양으로記호호였으니양의前音이ㄹ이안이라然호나穰字의音을수에도漢人은답으로發호호과△字가그의次位에載호緣由로△字가근에近호音이요과懸殊호音은안임을可히破疑호호지라도通釋에△字를半喉音이라호였으니喉音은ㄱㅇㅇ이라然호나ㅇ은有若無호호즉喉音의實音

이發聲하는者는 百古요五音의 第二位字는 第一位字에 古가 混合音이니 △字는 古에 宜音古가 混合音이 分明한도다 古의 混合音은 半舌音이라 古音이 古고 半喉音이라 古音이 古고 舌喉音이라 古音이 古고 此等 參考의 證으로 觀하면 △字는 古古의 混合音이 確實한나 半齒音이라 古音에 亂하여 誤解할바가 安이나라

然則 以前에 我國에서 △字로 記호 漢字를 支那 南方에서 是人○(現用 終聲로 如 古音)으로 傳호
이로 古故로 △字의 音이 △○의 混合音이라 古고 古고 讀聲 天 漢에 記호 △字를 古古 古古의
混合音으로 變호는 字도 古古고 口으로 變호
는 字도 古古고 無音의는 字도 古古有호이다

△字는 現今에 行用한는 終聲○과 如 混合音인 現國學士黃瓚이 著호 韻會에 三十
六母를 古古에 我國에서 國文으로 魚字母를 △字로 書호였으며 正音通釋에 平
聲魚와 上聲語와 去聲御의 支那音을 古古로 記호였으니 그 初發聲이 現今 行用한
는 終聲○音이 古古音은 어로 記호였으니 通釋時에 古古音을 變호것이라 何故
古古前에는 魚音을 어라 호였기에 古古에 도 口傳호여 오는 言語에는 秀魚를 古古어라
호고 鯉魚를 古古어라 호고 鮪魚를 古古어라 호고 鱸魚를 古古어라 호나 秀鯉鮪鱸의 音

에는前이나후이나수用○終聲이無호츄前音에는魚의初發聲이現今終聲○
 과如호엇음을可히知호마요또正音通釋에魚의我音을어로記호엇으니魚音
 니가어로變호과○을分別호이明白호고魚의傳來호는習慣音이如是호츄
 은現今終聲○音과同호音인줄을可히知호마요수에鱖魚를츄어라호고銀
 口魚를은구어라호는魚字의初發聲○音으로發호지안이호다호魚字의初發
 이전에도○音이안이라고斷言호수업느니라不再多言호고○字가現今에行
 用되는終聲○과同호音되는確証이有호니龍飛御天歌에現今終聲○과同호
 者는初終間에다○字로書호고○은終聲으로書호며初聲으로書호字
 가多호나다無聲호것이라二十一章에중三十章에성四十章에명七十八章에
 랑人十章에씩을八十九章에바흔이라記호엇으니此로可히○字은初終間에
 다수用終聲○과如호音인줄可히知호마요終聲으로는○을用처안이호도○
 이果然有若無호音인緣由니라

○字는古보다濫호고軟호音인디前에는初發聲을○字로記호漢文字의初發聲은應

當曰로發호엿갓고支那人은호字의初聲을發호는字가有호나國語에는此音이無호니라

○은欲字初發聲이라호엿으니欲字의音은前音이나후音이다初發聲은無호고
부聲이니有若無호것이라또前이나후이나○을初聲으로附호字卽아야어여
오요우유으이는가다正音에某某漢字中聲과如호다호는卜卜기기그그下下
一一音聲이요此音外에아모初發호는聲의附호이無호니○의音이無호을
此로可히知호바요正音凡例에終聲復用初聲이라호엿으니○은初聲으로音
이無호며終聲으로도音이無호지라龍飛御天歌에現今에行用호는終聲○과
如호호는初終間에다호字로書호고○은終聲으로書호며初聲으로書
호字는多호나다聲이無호것이라然則○이初終間에다音이無호을可히知호
바라附聲字會에○을異擬이라稱호여初聲으로는音이無호을뜻호고終聲으
로는音이有호을뜻호여수예○의行用이崔公의例를從호이니라

ㅋ는키의倒發音이요

故로

기는키의倒發音이라

ㄱ에—를先發音이發音면고니卽ㄱ에—를先發音는合音이요

ㄴ에—를後發音이發音면고니卽ㄴ에—를後發音는合音이라

ㅇ는니의倒發音이요

故로

니는고의倒發音이라

ㄷ에—를先發音이發音면ㄱ니卽ㄷ에—를先發音는合音이요

ㄸ에—를後發音이發音면기니卽ㄷ에—를後發音는合音이라

ㅈ는기의倒發音이요

故로

기는ㅈ의倒發音이라

ㄷ에—를先發音이發音면무엇이니卽ㄷ에—를先發音는合音이요

ㄸ에—를後發音이發音면기니卽ㄷ에—를後發音는合音이라

故로 무엿은 ㄱ의 倒發音이요

ㄱ은 무엿의 倒發音이라 하노라

右와 如히母音의 六元素에 다 ㄱ을 先合聲거나 後合聲면 ㄱ에는 ㄱ을 先合聲여

도 ㄱ가 相連聲고 ㄱ에 ㄱ을 後合聲여도 ㄱ가 相連聲싸름이나

ㄱ에 ㄱ을 合聲여發音은 그 音이 或長聲여진다고는 할지언정 ㄱ外에 무슨 音이

더 加聲여異聲게發音이 無호리라

故로 ㄱ에 ㄱ을 合聲는 것은 衍音이라

此로 觀聲면母音元素 六字가 ㄱ外에는 다 各各先合聲여도 合音이 되고 後合聲

여도 合音이 되니 또 다시 解聲면

ㄱ의 合音은 ㄱ로 代表聲고

ㄴ의 合音은 ㄴ로 代表聲고

ㄷ의 合音은 ㄷ로 代表聲고

ㄹ의 合音은 ㄹ로 代表聲고

一 一의 합음은 무엇으로 대표할 것을 것이요

卜 卜의 합음은 거요

十 十의 합음은 개요

上 上의 합음은 기요

丁 丁의 합음은 거요

一 一의 합음은 기요

上卜의 합음은 나요

丁 丁의 합음은 거요

上卜 一의 합음은 거요

一 上卜 一의 합음은 왜니餘는此외倣함

또此를觀하면 卅의 합음은 卜 十 上 丁 一 六 元素의 相合하는 것이라

故로此 六音들이 相合하는 데로 그 表도 그 合하는 各字대로 合함여

卜 一의 합음은 거로書하고 上卜의 합음은 나로書하고 丁 十의 합음은 거로書함

되

ㅏㅑㅓㅕㅗㅛㅜㅝㅞㅟㅠ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ㅿ
를作ㅿ여하는ㅿ로하는ㅿ로하는ㅿ로하는ㅿ로하는ㅿ로하는ㅿ로하는ㅿ로하는ㅿ로하는
別表로作ㅿ였을지라

然호則母音은合音別表를兼ㅿ여ㅏㅑㅓㅕㅗㅛㅜㅝㅞㅟㅠ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ㅿ
一의合音뿐이요他字가無호것이明確호족

正音에母音들은다某漢文字의中聲과如ㅿ다ㅿ였는데、字도中聲이라ㅿ였
으니、는ㅏㅑㅓㅕㅗㅛㅜㅝㅞㅟㅠ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ㅿ
外에又有호母音表라

此十字母音外에又有호母音表는一의合音表外에는確實히復有호者가無
호족

는卽一의合音表됨이明白호實証이니此는、가一의合音되는第一證
이요

一ㅏㅑㅓㅕㅗㅛㅜㅝㅞㅟㅠ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ㅿ
一ㅏㅑㅓㅕㅗㅛㅜㅝㅞㅟㅠ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ㅿ
一ㅏㅑㅓㅕㅗㅛㅜㅝㅞㅟㅠ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ㅿ
一ㅏㅑㅓㅕㅗㅛㅜㅝㅞㅟㅠ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ㅿ

觀者면卜卜卜卜에 一畫식加하였은속 一의合音表도 一에 一畫을加할지
다

一에 一畫을加하면他字의形과相同함이多하여 서로分別하기예亂雜을疑가
有할것이요

一의兩畫을合하면豎도안이요橫도안이니, 는豎도안이요橫도안인形象
이라

故로 一의合音別表를畫이簡短하고象이相當하게, 로代表함이니此는,
가 一의合音表되는第二証이요

、는正音에吞字中聲과如호음이 다호였고字會와通釋에思不初用聲이라호였으

니吞字中聲과思不初用聲이 다前音으로는 一의合音이요

수에漢語를記호는者가吞은든으로思는스로書호나은과스의中聲은 一라 一
는有호니 一을二制치안이호였을지라

然호則、는 一에近호음이요余韻과玉篇에도吞은든으로記호고思는스로記

할것으나 후에吞을 단이라讀하고思을사라讀하는中聲卜에無關호은再論
할바가無호니此는、가丨一의合音되는第三証이라

前부터婦라하는國語는國文으로여는리라書호여오는되

近來는는의本音即前音을說호여婦라記호여는리를讀호時에는며나리라호
나

그냥習慣으로婦라稱호는言語를聞호면며는리의는를니으의合音과如히發
호거나느와如히發호니

前에는는의本音대로婦라호는國語音을隨호여며는리라記호였을인즉

此로推考호되라도、는丨一의合音이니此는、가丨一의合音表되는第四証
이요

近來는記호、를讀호時에卜라호나正音에卜는單字中聲이라호고、는吞字
中聲이라호였으며字會와通釋에는卜는阿라호고、는思不用이라호였으
니卜、가相同치안이호은確實호되라

母音字는 己說 ㄱ과 如히 卜 ㄱ ㄴ ㄷ 一 卜 ㅋ ㅌ ㅍ ㅋ 外에 又有 ㄱ면 一 一의 合音別表外에는 要有 ㅎ者가 無는 것은 卽 卜 是 阿가 되면 一 一의 合音別表別事 實外에 他理由가 無는 卽 此는 一 一의 合音表되는 第五證이요

수에 支那人에 게 阿思의 音을 問호는 卽 卜 ㄱ라 하고 思는 스나 시으의 合音과 如히 發호고

全韻을 볼지라도 司士事等字는 다 스로 달았는디 수에 支那人에 게 問호여 도스 나 시으의 合音이나 스나 시로 發호되

沙查等字의 音은 사로 달았는디 支那人에 게 問호여 도사라 하고 日本音으로도 如此로 分別이 有호는 日本音도 支那音으로 本을 삼은 緣由라 此로 推考호여 도 一 一의 合音表되는 第六證이라 호는 노라

或 卜 是 高호고 一 一의 合音은 卽 有호는 者가 有호는 卽 同音의 高低로 其字를 異制호엿으 면 卜 外에 卜 ㄱ ㄴ ㄷ ㄱ 一 一의 異制치 안아 호엿을 理由가 有호는 卽 正音例에 去上平入 分別호는 表를 따로 만들었으리요 卜 高 一 低라 호는 足히 介論호

마가無音니라

漢文思士等字를漢學家에서說讀하여사라하는習慣이已熟하고또國文은 조금도研究하여보지안이는所以로漢文說習의影響이國文에及하여 들卜라하게되었으며國文과國語를誤讀하여誤書하여無法不一케하는弊가거진다漢學家로流出되었는니라

余가十七歲에英文의丁母音을解하고轉하여國文을子母로解호州母音의分合音을研究하다가、가!一의合音字의리마覺悟하고十九歲甲午에、가!一의合音字라는右의第一証을作하고壬寅元領을이池松村公을訪從하여、가!一의合音字를陳說하여乙巳春에至하여池公이大韓國文說을纂하여其序에近悟伊阿合音爲也之妙遂而下之愛得其弊이라하고其文에多少辨說이有호니此는、가!一의合音이라호이漸漸解明되어갈어르다

子母音의 清濁長短

子母音이 各各 清濁輕重의 別이 有하니 母音의 單音과 子音의 單音은 各各 清濁輕重을 다 有한데 母音의 合音과 子音의 合音은 各各 濁重을 다 有한데

母音은 此 分別外에 特히 分別을 것이 再有하니 卽 高、低、長、短、廣、狹、高長、高短、高廣、高狹、低長、低短、低廣、低狹、廣長、狹長、廣短、狹短等이라

此는 發聲器의 動作의 如何함과 振動數의 如何함을 分別하는 것이니 子音은 此 分別이 無한니라

子母 清濁輕重의 別은 各各 合不合에 在하니 再表의 要가 無한데 母音의 高低長短 廣狹은 此 合不合外에 特性이니 此 特性을 分別코자 하면 別로히 表를 하여야 될지라

然나 實用으로는 平常音에 無表로 平常치 못함 音에 一個의 表로 別함이 足할 것이요 行用에 確實히 表함만 함은 平常者와 狹長者 卽 曳長者와 廣長者 卽 舉長者요 其餘는 다 律呂로 歸함이 可한다 한노라

正音에 無點、一點、二點으로 平上去入聲을 分別함은 母音의 長短廣狹의 分別을 表함인디 漢文韻을 依倣함이 안아니 漢文韻에 入聲이라 함은 그 母音이 如
 一히다 促急함며 또 ㄱ ㄹ ㄴ의 終聲으로 表가 되느니라 시 表함 것이 無함되 國語
 는 入聲의 母音도 長短廣狹의 分別이 有함며 無點、一點、二點으로 分別함은 그
 子音을 分別함이 안아요 母音만 分別함이니 此三種 分別表가 母音의 長短廣狹
 만 分別함은 表가 됨이 明確함니라

然자니 此三種 表로만 母音의 分別을 細細히 表함은 못되고 實用만 爲함이니라
 高低長短廣狹은 母音에 當함 分別이요 子音에 關係가 無함즉 此를 分別함은 表는
 母音字에 附함이 音理에 適當함니라

權氏宗訓에는

四聲分點樣式

ㅏ 上聲 入聲之上同
 ㅑ 去聲 入聲之去同

ㅓ 入聲 入聲

原書點法廢失 玆用 細珠圈各於 縱橫一大書上分表而入聲之入聲은 宜平終

然나나如此호分別이든지全清次清全濁不濁半清半濁의細細호分別은音律學音律家에付하고國文의日用으로簡便호分別은單音은清音이라든지輕音이라하고合音은濁音이라든지重音이라하고만호可호다호노라

高低長短廣狹清濁輕重의別도天地의自然호理라我國의特異호性을表準호여適當히分別호것이요漢文의音韻만依微호바가안이라호노라

子音의接變 子音이相接호여發音時에는그相接호는形勢로自然히變호는것

기은ㄴ, ㄹ, ㄱ, ㅋ, ㆁ에서는○今用終聲
과如호것으로變호

ㄴ과ㄹ은如何히相連호든지ㄴ이ㄹ로變호치안으면ㄹ이ㄴ으로變호

ㅅ, ㅈ, ㅊ, ㅋ, ㆁ에서는ㄴ으로變호과와ㅅ는古가合호音인디
호外에ㅅ不만ㄴ으로變호

ㄱ은ㄱ上에서音의鍊連이無호者는호이○으로變호여發호되此는本音대로

發호수잇는것이러然나鍊連이無호者가○으로變호는것도ㄱ이ㄱ을連

호여얼마큼○으로變호만호形勢가有호으로變호는것이나此도天然의勢

가안이라호수업는나

ㅂ이ㄴ, ㄹ, ㅍ上에서는ㅍ으로變호

ㄱㅍㅂㅅ는如何히相連호든지下字의發音은重호듯호

호는他子音과如何히相連호든지混호됨

호外에諸子音은如何히相連호든지先後대로加疊됨

何子音이든지同音이相連호면重音卽雙音이됨

兩母音間에幾何의子音이有호든지連讀호면合音으로發호느니라
上母音의終聲이든지下母音의初聲이든지다合호여發호느니라

單音은發호기易호고合音은發호기難호므로幼兒가산형을各讀호여산이
라형이라호時에는산의ㄴ과형의ㅎ를다發호다가산형을連讀호時에는
ㅂㅅ를다發호지못호고혼이호는때어산형이라호이면ㅂㅅ를한겹에發호
기難호緣由니라此는古가軟호므로幼兒가안이라도매기가易호거니와他
子音의合호것은더욱發호기難호니라

某某國民들은如此호接變들의더러는本音대로強發호는習慣이有호므로

理에 違外됨이 有호되 我國의 接變을 聞호고 도로 我國의 習慣인 가호나 此 接變은 我國의 習慣이 안이요 音理에 自然호 形勢니라

子音初聲의 形勢 子音은 始發호고 終發호는 形勢로 相異호이 有호나 初聲으로 是本音대로 發호되 終聲으로는 變호거나 減호이 有호

(例) ㅅ디 이 初聲으로 사다라호時에는 各各本音대로 發호되 終聲으로 止호여 ㅅ는 이라호時에는 ㅅ이 디과 同호고 디이 ㅅ과 同호

ㅈ次디도 終聲으로 止호면 ㅅ디과 同호호여 그 分別이 無호

ㅋ次디고 字가 終聲으로 止호여 ㅅㅈㅈ次디고 止호時에는 古는 減호고 是

ㅅㅈ次디고 ㅅ만 發호호과 如호

終聲으로 善發호는 合音도 그 位次를 換호면 一音은 不發호이 有호

(例) ㅎ 리 이 善發호되 ㅎ의 리를 換호호여 ㅎ호면 ㄱ을 發호호득 ㄱ은 發호지안

이호고 ㄱ을 發호호득 ㄱ은 發호지안이호

我國의 習慣으로 變호는 音과 發호치안이호는 等音이 有호나 如左호

ㄹ을終聲으로止聲면ㄹ로變音

ㄹ을古外에諸子音上에서는ㄹ로變音니此는ㄹ이古外에諸子音上에連音의發音時에는單ㄹ로發音기難音여ㄹ로變音이라故로接變이라고도호만音
니라

ㄹ을ㅌ가ㅎㅓ一의初聲으로始發音면ㄹ으로變音

ㄹ이나ㄹ을ㅣ나ㅣ先合音母音即ㅣㅌㅑㅓㅓ의初聲으로始音의發音면그ㅣ
이나ㄹ은發音안이音

ㄷ을ㅣ나ㅣ先合音母音即ㅣㅌㅑㅓㅓ의初聲으로는ㅌ로變音니畿湖黃原의
方音이根本됨

ㅌ를ㄷ으로變音은平安道の方音이根本됨

ㄷ을ㅣㅌㅑㅓㅓ의初聲으로는ㅌ로變音니畿湖黃原의方音이根本됨

○은수의行用을보면終聲으로는發音音고初聲으로는發音치안이音는디初
聲으로書호○이其上에母音을連音면兩音을分音의合音되지못音기音는

것이習慣을成호지라龍飛御天歌에도○을初聲으로書호것이多호되다有
若無호表가되엇으니此는變音은안이나習慣이니라

ㅈ ㅋ ㆁ ㆁ는 ㆁ 이나 스 이나 즈 나 으 나 ㄹ 로 初聲됨을 讀호時는 ㅈ ㆁ ㆁ ㄹ 로 發호
니 此는 全國 一般의 習慣이라 間或 原音되 發호는 者가 有호나 偶然 音에 不
過호으로 準則 音마가 못되느니라 然호나 ㆁ 이 初聲된거는 畿湖 原에서는
本音대로 發호느니라

ㅈ ㅋ ㆁ ㆁ는 ㄹ 로 初聲됨을 讀호時에는 ㅈ ㆁ ㆁ ㄹ 로 變호고 ㄹ 은 ㄹ 으 로 變호여
發호니 此는 平安道의 方音의 習慣이라

子母의 分別과 子母가 各各分合호며 子音의 接變의 習慣音을 辨論호는 文字가
從來도 無호나 此等分析의 實用에 의혹有聲호으로 右와 加히 畧陳호노라

左七華東正音略附贈抄を以

五音初聲五音合二
變爲七音

角音牙 ㄱ ㅋ ㆁ

徵音古 ㄷ ㄸ ㄴ

商音商 ㅅ ㅆ ㄹ

羽音唇 ㅈ ㅊ ㅍ ㆁ

宮音喉 ㅇ ㆁ

變徵半舌
音舌 ㄷ ㆁ洪武韻作
半徵半商

變宮半喉
音喉 ㆁ ㆁ洪武韻作
半商半徵

諺文初中終三聲辨

初終聲通用八字

ㄱ其 ㄷ尼 ㄷ油 ㄹ梨 ㄱ眉 ㅈ非 ㅊ人 ㅍ時 ㆁ異

其尼地梨眉非時異八音用於初聲役ㄱ ㄷ油 ㄷ梨 ㄹ眉 ㅈ非 ㅊ人 ㅍ時 ㆁ異 乙音 邑音 衣音 疑八音用於終聲異 異兩字
只取本字

之釋例
語爲耳

初聲獨用八字

ㄱ 其 二 消 五 皮 不 之 大 齒 △ 面 ㄹ 伊 古 屋

其字亦取本字之釋體語爲聲

中聲獨用十一字

卜 阿 卜 也 十 於 斗 余 上 吾 止 要 丁 牛 卍 由 一 應 不用 終聲 伊 只用 恩 不用 初聲

此는 中宗朝二十二年丁亥에 崔公世珍이 撰定 訓蒙字會에서 朴公性源이 撰

定 東正音에 贈載 훈 것 이 라 訓蒙字會는 漢文을 類聚 諸韻 等 이 四字 書로 作

훈 것 이 요 總字 數가 三千 三百 餘니 國文으로 義外 音을 載 等 이 漢學의 初習으로

用 훈 것 이 라 正音이 頒布 된 世宗朝 丙寅年과 相距가 八十二年이 矣 今

皇上 隆熙二年 戊申과 三百八十二年이 라 國文의 큰 變革은 訓蒙字會에 在 故 故로

字會의 國文例를 正音과 雜互 等 이 그 變革됨을 左에 略說 等 노라

正音에 는 子母字를 다 橫書 等 이 었 는 디 訓蒙字會에 는 子音은 五音으로 分 等 이 各音

을 一行으로 記 等 이 其頭에 角徵商羽宮은 正音에 無 훈 것 이 요 르 을 徵音行의 下

로間距^가여記호고變微^라고洪武韻^가半微^{半商}이라^고洪은正音에無호^것이
요△字는宮音行의下로間距^가여記호고變宮^{이라}고洪武韻^가半商^{半微}라
洪은正音에無호^것이요正音에半齒音^{이라}고洪을半喉音^{이라}호^였고

正音에連書^호는輕唇音口○을橫^方字○로代製^호여唇音行에連載^호고

正音喉音行에有호^고字를廢호고華東正音에前에漢字의初聲은○으로換

여記호고

正音에子音들은某漢字의初發聲과如호다^고洪을換^호여^기其 用 乙 規 口 用 乙

非 人 也○疑 此 八 字 是 各 各 如 此 此 二 音 是 以 第 一 字 是 初 聲 是 以 例 音 是

요第二字는終聲으로例音이라故로初終聲으로通用^호意^호音^이요

아 例 已 始 正 皮 又 之 夫 由 也 伊 古 屋 此 八 字 是 各 各 如 此 此 一 音 是 以 第 一 字 是 初

聲으로獨用^호意^호音^이디此後로行用되는國文이다此例를從^호음으로國文을

誤用^호에最甚호^고雙習^이此獨用의說에서起호나^라何故오國語에고스△

古終聲이잇을^알아^고正音에終聲도初聲을復用호나^안호^고龍飛御天歌에

國文은 國語대로 記寫치 못하였으나 ㄱ와 ㅈ와 ㅊ와 ㅅ等字를 終聲을 用하였거늘 字會以後로 今日까지 此獨用例를 從舊으로 語體를 失고 音理를 違호여 言文이 相左호여 亂雜無法호이다 此에서 源이 되어 其流의 弊가 浩大호였느니라

池을 或은 應當地리나 劑劑의 過라호나 實據가 無호나 地가 안이요 池면字會時에는 池의 音이 디라 然호나 通釋에는 支那音치 我音지 로 달았으며 三韻聲彙에는 我音지 支那音지 又 찌 로 달았고

非는 漢文初聲字母圖에는 輕唇音병이니 此는 바로 音호것이니 通釋에 支那音병 我音비 로 달았으며 三韻聲彙에는 我音비 支那音병 又 뵤 로 달았고

㉞의 國語는 今日의 音으로 觀호즉 흔히 爲이라호고 或 뵤이라호는 ㉞의 末音은 ㅅ이니 ㅅ은 ㄷ에 當치 안이호 즉 議論호바 가 업고 其時에는 ㉞의 國語가 爲이던지 知치 못호거니와 ㉞은 恆用호는 音인즉 傳호는 習慣이 變호기 容易치 안이호였으리니 此는 爲을 爲으로 誤認호고 ㄷ을 名호이라 何故호르을

獨用初聲이라 함으로推觀하면國語에 終聲이 有함을知치 못함이니라或
國語에 終聲이 有함을知하고도 終聲으로用치 말라함이면 終聲은
二으로換用하라함이니라

治는通釋에支那音과我音을다치로달았으나三韻聲彙에는我音과支那音
지又去又치又외로달았으나此時에는러라함였으리라

而는通釋에支那音을我音으로달았으며三韻聲彙에는我音이支那音과
이又의로달았으나此時에는이러라함였으리라

伊는通釋에支那音과我音을다어로달았으며三韻聲彙에는이又의로
달았으나此時에는이러라함였으리라

並書의說은無하고通釋에漢文字를我音으로는並書함것이無하니以來로國語
에도並書를終聲으로用치 안이함도此에서出함이라함노라

ト 阿 也 卜 於 余 上 音 要 下 牛 由 一 終聲 伊 中聲 思 初聲 此 得 音 十 一 字 의 音 을
如此히記하였으니ト卜于于上音下、가곳아야어여오오우유이이

와同聲이○初聲은有若無가用音을可히知悉바요또付音卜卜卜卜一卜
 卜卜卜·가아모初終聲없이獨發音을此에可히知悉지라中聲獨用이라音은
 ㅁ此를訓音이나中聲獨用이라音이正音에某漢字의中聲과如다다는義味
 와同치안이音이可히模糊의歎이無다다訓치못소리도다

吾는通釋에我音을우로달았으나此時에는오라音였고수예오라音은通釋
 音을變音이前과如히發音이니라

○을異凝이라名音이初聲으로는異의初聲이無音과如가用音고終聲으로는
 凝의終聲과如가用音었으니此例即今用終聲과如音이初聲으로發音는
 것을○라音고○와如音이終聲으로發音는것이今用終聲○이니라

通釋例에부者는부우之間音이라音만有호디ㅁ正音에連書字音이나曆輕音中
 에一이니라

通釋凡例에○
 ○此三者出聲相近不必異制라音었으니○字는輕曆音의代
 表라其聲이엇지○과相近音이○은字會例의終終○과初聲○字와는相

同나 正音例로 觀하면 ○은 欲字 初發聲이라 하였은즉 欲字 初發聲은 無하고
 ㄹ字는 藥字 初發聲이라 하였으니 藥字 前音의 初發聲은 凝字 終聲과 如를 無
 音 ㄹ과 有音 ㄹ을 엇지 相近라 할리오 此는 此를 謂함이 安이라 前에 漢文의
 ㄹ○◇로 記호字의 初聲을 我國에서는 相近하게 發하니 漢字의 我音은 發하는
 대로 音을 書호는 것이요 此三字을 廢호자 音은 安이니라 何故오 此說은 其히 模糊
 하여 何를 謂호는 人지 解키 難호나 通釋에 漢字의 音은 國文으로 記호는 것을 보면 支
 那音에는 ㄹ의 初聲으로 記호는 有호고 其字의 我音의 初聲은 ○으로 記호고 支
 那音의 初聲은 ◇로 記호는 字는 前에 ㄹ으로 記호는 字니 我音은 口으로 記호는
 으니 不必 異制라 호는 我音은 異記호는 것이 업고 ㄹ는 ○으로 用호고 ◇는 口으로
 用호호자 호는 이라

ㄹ字는 伊라 호였으니 伊의 音은 ㅅ音이 安이요 前音을 謂호는 ㄹ이며 ○은 異凝이라 호
 었으니 異는 古ㅅ音이다 이요 凝의 終聲은 ㅅ 伊의 前音 初聲과 同호는 音이라 初終
 間에 同音이면 同字로 記호는 可호나 一例를 舉호는 可호므로 觀하면 卜의 初終

聲이다 同호故로 初終에 다 同字 7 으로 記호니 此例를 依호면 相同호音을 相異호字로 初聲에 는 ㅎ字로 終聲에 는 〇으로 書호미 不可호지라 然호즉 ㅎ字를 用호면 初終間에 다 ㅎ字로 만 書호질 것이요 〇을 用호면 初終間에 다 〇으로 만 書호질 이 可호지라

然호즉 有音호字에 만 一表를 擇定호여 初終에 다 同字로 用호질 것이요 無音호은 表도 用치안호미 可호다 호노라

通釋 凡例에 華音之수者는 수우之間音이라 호은 漢文字가 支那音이 든지 我音에

下의 初聲으로 △로 ㅎ 合音가 無호며 通釋에 도 수로 音을 記호것은 一字도 無호고 尤

韻授搜隱 脯撤搜 倣搜와 有韻搜 叟搜 叟搜 倣搜 酸搜와 宥韻搜 癩撤 澈搜字의 支那音을 수로 記호였으니 스의 上畫 八과 下畫 一가 近着호면 △가 되기 易호지라 此는 刊板호時에 割削의 過失로 書를 수로 誤刻호이니 수者는 수우의 間音이라 호는 수가 안이요 후를 謂호미니라

圓計이라 호이 其의 被圓호는 名辭인디 此에 間音이라 호는 實地로 圓호면 다 合音이니라

通釋凡例에 凡字皆有初中終三聲必將三聲併合然後乃成一字라 하였으니 各字로만觀하여도 ㄱ과 ㅏ兩聲이合하여 一字를成하였거늘 必將三聲併合然後에乃成一字라 함은 不可하니라

俗用十六行反切은何時에何人이始編흥인지未微이어나와 그次序가三韻彙의例와同하니 此後로行用된듯하며 俗에 ㅏ ㅓ ㅗ을 시외니 行이라 함은 異凝以外十五行의 各字에 ㅏ를 後合俗稱함은 字가 我國語와 漢文音에 多하고 異의 音이 ㅏ와 同하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은 다 後合함은 字들인 故로 ㅏ도 此行에 記하고 此를 讀흥時에 ㅏ의 名時或의 ㅓ音을 下하고 異凝의 ㅏ音을 上하여 의라稱흥인 가보며 ㅓ音행이라 함은 凝의 誤讀이니 此는 轉說의 尤甚者라 足히 辨論흥바 가 못되느니라 自來로 自國言文을 學習하여 研究하여 正訓함은 者가 無하고 愚婦孺孩에 지만 一任하고 一般士流는 漢文의 音韻만 일상음으로 國文에 定호名稱도 說讀하여 ㅏ를 의라 함이며 ㅓ音행이라 함에 至하여 近日까지 如此히 呼호나

열고四十三章에 가로써 ㅎ이有하니 쓰여져 가는 그本音되는國語의體가如何
 ㅎ은莫論하고同字의音으로만議하면文과音이相同하고또하여 ㅎ은不可하
 니라如何하는지同歌의國文은可取者가不少하니音理와語式에相當치못
 ㅎ이또 ㅎ不少하여國文의變가此歌에서始出하니라

龍飛御天歌에서을兩名號間에置음이有하고上名號末에附音도有하니六章에
 東海之濱을東海스므라 ㅎ과五十章에天星을하느비리라 ㅎ이라發音으로는
 一般이나스은上名號를形名體로變하기爲하여加하는것이요下名號에는關
 係가無호니上名號에附音이可하니라 스르△△ 和△△ 以△△ 프△△ 字를終
 聲으로書음이有하니國語에可하게記音도有하고不可하게記音도有하며
 을漢文字下에附書음이有하니 곧一百九章에 金燭이라書호것인디此은
 들을로 줄여서發하는 것을書음이라 나 들의 들을 줄여서만發音을 날로書
 니此例를依하면國漢文을交用에 ㅎ時도漢字下에附發하는音도附書음이可
 하니라

同歌의 國文이 語體와 音理에 不可言記호인 것이 不少호나 如何호나 子音이든지 初終에 通用호인 證據됨으로 子母字를 轉換隨用호은 束縛이 無호나 中葉으로 誤解說用호는 獎를 辨明호고 國語의 音理로 任意取用호자 호기에 確實히 證據 되는 文字니라

近來로는 ㄷ을 終聲에 廢호고 ㅌ으로 通用호나 此는 偶然히 成習된 獎라 然호나 自 初로 ㅌ을 終聲에 國語대로 明白히 分辨호여 用호지 못호에서 生호이니 此外等호 獎源이다 國語를 研究호지 못호에서 起호이니라

此는 文字를 用호에 變호習慣이 尤音語의 變호習慣은 안이니 脫이라 호는 國語 變의 終聲은 ㅌ으로 發호고 ㅌ이 라 호는 國語 變의 終聲은 ㅌ으로 發호겟마는 現今에 國文을 尋常히 書호는 者는 脫이라 호는 國語도 ㅌ으로 記호고 ㅌ이라 호는 國語도 ㅌ으로 記호며 此를 讀호는 者도 分別호지 못호나 그 不可호은 足히 介論호 마가 못되나 ㅌ과 ㅌ이 某字의 終聲으로 下에 母音이 連호지 안이 호고 發호을 止 호時와 某子音의 上에 連호여 發호時는 ㅌ과 ㅌ이 相同호나 此는 臨時의 自然호

音理라百年을隨時의音으로는변년이라發音되變년으로書치안크變年으로書고여本體를存音과如히스디의終聲도我國言語의本音을依고여書함이可
 가니라

國文은國語를本音여割호엿으니國文의音을研究호랴면不可不國語의音을研
 究함이可호으므로行用에研究를不待호고誤함이無刊記호는國語音은除호고
 未解호는語音만略著호여下에列錄호노라

人終聲

부每나每옷衣자初젓乳벗友깃羽엇餘못田앗亦앗亦빗亦잇亦

앗豆亦앗亦앗亦맛味똥糞똥東곳所여亦섯六그也뜻也오也앗也송也곳也

머也섯也구也무也뜻也이也웃也 (并名)

벗洗벗洗앗也벗也앗也잇也 (并動)

반也뜻也 (正)

仁終聲

달閉반受견也인信번變돌具上生솔也얻得 (并動)

곧直갈也 (并形)

己終聲

물 陸亦吳 覺 末亦吳 밑 本 傍 (字并名)

말 任 喜 散 말 德 近 覺 附 着 부 德 研 말 吐 (字并動)

말 汝 惡 似 如 (字并形)

丕終聲

말 午 (字名)

말 得 말 迎 말 結 말 裂 말 豆 말 潤 말 植 말 溫 말 兒 虎 말 着 (字并動)

말 低 吳 晚 合 (字并形)

大終聲

말 從 多 逐 (字并動)

五終聲

말 萊 望 前 望 關 (字并名)

말 覆 望 轉 例 (字并動)

말 高 (字形)

古終聲

말 積 望 產 入 弄 置 望 編 (字并動)

말 好 (字形)

ㄱ終聲

말 削 望 修 望 編 望 和 吳 妙 望 釣 魚

聃(外字名)

ㄷ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ㄹ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聃(聃)

ㄺ

聃(聃) 聃(聃)

ㄻ

聃(聃) 聃(聃)

ㄼ

聃(聃) 聃(聃)

ㄽ

聃(聃) 聃(聃) 聃(聃) 聃(聃)

ㄾ

聃(聃) 聃(聃) 聃(聃) 聃(聃)

ㄿ

聃(聃) 聃(聃) 聃(聃) 聃(聃)

ㅀ

聃(聃) 聃(聃)

값價亦
값名

吳終聲 吳生
(字)

瓦終聲 瓦風
(字)

以終聲 以風
(字)

右陳₂國語中에人終聲字는俗에서도本體대로記用을나此는人이그스스고等字의終聲과不同호世辨別을기爲을이同列에記호이요리러如等終聲字는前本어本體대로記호이不無을나其體가如此호世未解을는者도多호으로同列에記호이요其餘는余가研究호愚見으로그國語의本體가如此을다호이더니隆熙元年十二月日에池松村錫永氏를訪尋호奇同氏가龍飛御天歌를求來을여余에게示을거늘余가此歌를閱覽을다가스스고其終聲으로記호字가有호을見을고大喜을여言을되國語에그스스고그字를記호以吳以等音이終聲으로發을는字가有을나此等子音을終聲으로도用호이事理에當을호지라然호奇他証을再要호을바가無을나訓民正音에終聲復用初聲이라을엇고此歌에도스스고等字을終聲

으로書寫이有하니前日에도此理를申復히陳說호야어니와如是를未解호獨
用說에牽引되어國文을永々誤用케호은決코不可하니俗習을改호고音理와語
體에正當호게記用호어可히萬世에法될단호國文을成케호자호였노라

記音文字는言語를本호어그言語대로記호는것이니記호文字가言語와相同호
後에야可히文을成호것이어늘以來의國文諸籍을觀호면語體와音理의如何호
은不究호고僅호히連發의音만強講호이호호뿐더러連發音도不合호이不少호
여言語와文字가相左되호으로記文이其言과不同호여全히爲文의道를失호자라
一例를舉호건외^{受用}발음면^{受用}을^{受用}받음면^{受用} 받드면^{受用} 받드면^{受用}으로各々已尊를從호여書
호니^{受用}받음면을連發호면바스면이요^{受用}받드면을連發호면바드면이니其音其體가
其言과相背호고마드면은連發호는音은本語와相同호나^{受用}발음의^{受用}을移호어으면
에冠호였으니如此히書호을^{受用}轉호면三二兩字를連書호時에三字의下畫을移호
여二字에冠호여三字는二字로作호고二字는三字로作호여上下兩字의本體와
本數를다變호여書호과如호니此를엇지可호다謂호리호

國文은國語의影子요國語의寫眞이라影子가其體와不同하면其體의影子가安
이요寫眞이其形과不同하면其形의寫眞이안이라

國文의沿革을觀하면初也에는모든子音을初終에다通用하다가中葉에는ㄱ
ㄷㄹㅌㅍㅈㅊ만初終에通用하고ㅇ은終聲으로만發音하다니近日에는ㄷ도終聲
으로用치안이하니此는言語가如此히變함이안이요文字로만變함것인디如此
히變함스혹文字는音理와語式에漸漸違反됨으로流弊가甚多하여文이可히文
됨에未及하니此는國文의發達됨이안이요降衰됨이라

天下萬事에다其理가有하니理를順하면便함이典盛하고理를違하면難함이降
衰함이니國文이今日에如此히降衰함은正音이頒布된지四百六十有三載에語
典一卷도未成함이標準이無음을因함일설더러從來로國語의研究는尙今默然
함이可否의別을未解함으로用法이其理에違反함이多함緣由니라

余가十七歲壬辰에英文萬國地誌를學習함이니英文의子母音을解하고轉함이
國文을子母로解함서翌年癸巳에國文母音字卜ㅏㅑㅓㅕㅗㅛㅝㅟㅡㅣㅥㅧㅩㅪㅬㅭㅮㅰㅲㅳㅵㅷㅹㅻㅽㅿㅿ의分合

됨을 연구하시다가、는卜가안이요——의 합음이외리라覺悟하시고十九歲甲午에
偶然호閑隙을得하시여、가——의 합音된다는右의第一証을作하시고諸友를請하
여國文同式會를組織하시고國語에드르스모古下以以古等音이終聲으로發하
는字가有호各國語대로國文을記用하시하시더니同會諸人이獨立黨의嫌으로四
處에奔竄하시여素志를完成치못하시었으나余는此事를因하시여幸히閑隙을得함으
로己亥年에國語를더研究하시고以後로다시此理를親知間에申復히說明하시여同
議하는者가不少하시나國文에聲望이有하시다하는이들도此說을恍然히覺悟치못
하시여舊誤를未免하시더니今에國文研究所가官設되고國語科程을教授하시는學校
도漸次로多하시어지며諸公들은如此호酷寒과苦炎을不避하시고熱誠으로國語를
講習하시니開國호지四千餘年에口口相傳하시어以說復說하시던言語와頒布된지近
五百年에人人異用하시어因仍苟且하시던文字가釐正된줄은可히指日코待하시겟는
故로欣歡의誠을勝己치못하시나其結果가如何히될지또할지難하시나諸公은誠
力을倍加하시어研究를連續하시어期於好結果를得케하시기를願하시노라

人終聲行以下는 音學에 關係가 아 조 無다 다고는 謂치 못하 겠으나 此는 國語에 當
한 議論이니 此次에 連續하여 講習을 國語文典科 字學 變體學 格學 圖解式 實用演
習科의 思想을 引導하 는 것이요

此 音學은 總히 國語文典을 學習을 準備科가 되는 故로 題를 國語文典의 音學이라
하니 國國文의 音學이 나라

隆熙二年七月 日

大韓京城尙洞第二回夏期國語講習所講師 周時經

隆熙二年十月 日印刷

隆熙二年十一月六日發行

定價三十錢

板權
所有

發賣所

著述者 周時經

發行者 盧益亨

印刷所 右文館

京城中部校洞二十九號加一斤

發行所 博文書館

京城南大門內街洞

京城南大門內 博文書館

平壤鍾路 太極書館

京鄉各有名書館

興哀制

長行

泚水

明風

沙洲

陳武

卷之三十一

卷之三十一



